

“1인가구 잡아라”...유통업계는 변신 중

미니팩주·모닝메이커 등 혼족가전 매출 성장세
1억음 굴비·애플수박·‘한끼밥상’ 코너 등 인기

최근들어 1~2인 가구가 주거형태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도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가족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는 달리 1인가구에 맞는 소규모·소포장 제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통계청 인구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수는 2010년 417만명, 2015년 518만명, 2017년 561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인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3.9%, 2015년 27.7%, 2017년 28.6%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형유통업체들도 1~2인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마트의 올해 1~5월 주류 매출을 살펴보면 125ml 미니 맥주 매출은 324%, 200ml 이하 미니 민속주는 67%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마트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니 주류전용 매대’의 효과다. 미니 주류 매대에는 125ml 미니 캔맥주는 물론 혼족들이 쉽게 사서 마시기 힘들었던 위스키, 청주, 사케 등도 200~300ml 용량의 미니주류 상품들을 출시해 선보이고 있다. 현재 이마트 미니주류 매대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약 100여종에 달하며 전국 80개 점포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가전 제품 시장의 ‘작은손’이었던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가전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라면포트, 샌드위치메이커, 모닝메이커(토스터와 커피머신을 결합) 등 ‘간편함’을 내세운 ‘일렉트로맨 혼족가전’ 시리즈 9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출시 초기 월 2,000개 가량 판매되었던 혼족가전은 꾸준한 판매가 늘어 현재 월 판매량 3,000개를 뛰어 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오는 7월에는 미니블렌더, 1인용 전기포트 등을 추가로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2017~2019년 전기 밥솥 매출을 분석한 결과, 3인용 이하 밥솥 매출이 18년 9%, 19년 21%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이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은 유통업체 식품관의 신선식품 포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소포장·저중량 과일, 채소 등이 신선식품 코너에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1~4월까지 전체 신선식품 코너에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1~4월까지 전체 신선식품 코너에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1~4월까지 전체 신선식품 코너에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2인가구 주거형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들도 이에 맞춰 소규모·소포장 제품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로, 800g~1kg 사이 팩포장으로 판매하던 체리 등의 과일도 300g~500g 사이로 줄이는 등 소포장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야채의 경우 4개를 묶어 판매하던 파프리카도 3인상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미니 파프리카, 미니 단호박 등 ‘미니 어찌 상품’도 최근 각광받고 있다. 굴비를 세는 고유명사인 ‘두름’이란 단어도 사라졌다. 광주시세는 소가족 중심의 사회 트렌드에 맞춰 굴비 20마리를 묶어 판매하던 두름 대신 14마리를 묶은 ‘1억음’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도입했다. 2인 또는 3인 중심의 밀레니얼 가족도 두 달 내에

맛있게 굴비를 소비할 수 있도록 14미(1억음)와 10미 등으로 굴비의 수량을 조정해 굴비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최근 미니수박을 선보여 ‘대박’을 쳤다. 무더위로 인해 수박을 먹고싶어도 지나치게 많은 양 때문에 선풍리 구매하지 못하는 1~2인가구들을 겨냥한 일반 수박의 절반크기인 ‘애플수박’ 판매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롯데마트 상무점의 애플수박, 속노랑미니수박, 미니수박, 배개수박 등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는 ‘한끼밥상’ 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한끼밥상’은 농·수·축산 등 다양한 식품 상품군에서 엄선한 총 100여개 품목을 일반 상품 대비 중량을 60~90% 이상 줄인 소포장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품 수를 1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 시장에서 1~2인 가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겨냥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용현 기자

경제 프리즘

내년부터 시골까지 초고속인터넷

내년 1월 1일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의무를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이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의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이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월 각각 시행된다.

중기부 ‘제로페이’ 이벤트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제로페이 쓰고 뉴욕 가져’ 이벤트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3명에게는 뉴욕 왕복 항공권과 ‘케이콘 2019 뉴욕’ (KCON 2019 NY) 1일 입장권(1인 동반 가능)이 제공된다. 이밖에 3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 5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로페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기간 중 전국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결제를 인증하면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공식 홈페이지(www.zeropay.or.kr)의 ‘가맹점 찾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건설협 광주·전남도회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추진
26년간 237가구 지원 ‘귀감’
골드클래스·중흥·영무 등
15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상부상조의 사회분위기 조성, 주택건설업계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노후주택 16가구를 대상한 개·보수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지원할 노후주택 16가구는 광주 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26년째 이같은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원받은 국가유공자는 올해까지 총 237가구에 달한다. 올해 사업은 중흥건설 등 지역주택건설사 15개 업체가 지난달 말부터 공사에 참여해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업체는 가구당 평균 1,000만원 수준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개·보수대상 16가구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출입문과 방, 부엌, 마루,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와 지붕 개량공사, 도색, 보일러교체, 도배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광주·전남지역에 분점을 두고 있는 회원사들이 부동산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취지에 적극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줘서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공자·유족들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줘 타 지역주택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한편, 이번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는 골드클래스(회장 박철홍), 보광종합건설(회장 박철홍)을 비롯해 호반건설(회장 김상열), 호반베르디움(회장 김상열), 중흥건설(회장 정창선), 영무건설(회장 박재홍), 대광건설(회장 조태석), 대광이앤씨(대표 조영훈), 대성건설(대표 임흥근), 리젠시빌주택(회장 이영웅), 리제(회장 조정환), 모아종합건설(회장 박치영), 삼라(대표 박도순), 우미건설(대표 이석준), 헤림건설(회장 한동주) 등이다. /서미애 기자

(주) 백양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업체!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위생관리 철저히 하며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품질에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 세탁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운반차량 고온소독 살균
- 운반 카트 고온소독 살균
- 청결 세탁물 탑재

(주) 백양산업
전라남도 장성군 향동면 산기길 93 TEL. 061) 392-7900

내일부터 호남통계청 경제통계통합조사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의 약 6만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20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

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코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사이다. 9종의 경제통계조사는 기업활동조사와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이다. 올해 통합조사는 프랜차이즈조사, 법인

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가 추가되어 더 세부적인 경제구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오는 11월~2020년 1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송수영 기자